

Discourse Studies: An introductory textbook: Korean translation

Renkema, J.

Publication date:
1997

[Link to publication](#)

Citation for published version (APA):
Renkema, J. (1997). *Discourse Studies: An introductory textbook: Korean translation*. Yonsei.

General rights

Copyright and moral rights for the publications made accessible in the public portal are retained by the authors and/or other copyright owners and it is a condition of accessing publications that users recognise and abide by the legal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these rights.

- Users may download and print one copy of any publication from the public portal for the purpose of private study or research
- You may not further distribute the material or use it for any profit-making activity or commercial gain
- You may freely distribute the URL identifying the publication in the public portal

Take down policy

If you believe that this document breaches copyright, please contact us providing details, and we will remove access to the work immediately and investigate your claim.

달화연구의 기초

JAN RENKEMA 지음

이원표 옮김

한국문화사

담화연구의 기초

DISCOURSE STUDIES
AN INTRODUCTORY TEXTBOOK

JAN RENKEMA 지음
이원표 옮김

한국문화사

감사의 글

이 책은 대학에서 10년 이상 담화연구를 가르쳐 온 경험의 산물이다. 많은 학생들의 질문과 대답을 참고해서 담화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하고 (다시) 체계화했다.

Tilburg대학교 언어문학과에서 함께 담화연구 모임에 참여해온 동료들에게, 독일의 여러 대학들을 방문하고 Fullbright 연구교수로서 미국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특히 Leo Noorman, Jef Verschueren 그리고 Carel van Wijk에게 여러 가지 논평과 중요한 지원을 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 또한 번역을 해준 Jeanne van Oosten과 Mark Vitullo, 참고문헌을 정리해준 Elles van Happen과 Ingrid Magilsen, 텍스트를 만들어준 Rieky Jurriëns와 Anneke Smits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

이 책이 화용론과 문체론, 말에 의한 상호교류, 이야기와 논증, 그리고 담화연구의 모든 다른 영역을 가르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입문서가 학생들이 담화라 불리는 매력적이면서도 흥미를 끄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자극을 줄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1992년 크리스마스, Tilburg대학교

Jan Renkema

옮긴이의 머리말

담화연구는 ‘담화’가 대체로 ‘문장 또는 발화문들의 결합 또는 집합체’라는 분석의 단위를 표현하고 있고, 이런 단위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법이나 방법론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루어지는 내용이나 개념들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이다. 담화연구가 ‘담화분석(DA)’이라는 특정한 접근법으로서 알려진 것 외에도 흔히 텍스트언어학이나 화용론, 사회언어학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가끔 언어학은 곧 담화연구 또는 담화분석과 동일시될 수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도 담화연구의 포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담화연구의 이런 성격은 특히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고도 당혹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책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언어의 성격과, 형태 및 기능적 측면 등 주요 측면을 소개하는 방향 제시를 시작으로, 명제, 접속사에 의한 담화의 연결, 담화의 유형, 문체 등 담화에서 발견되는 기본적인 현상들을 제시하고, 상호교류와 이야기, 논증 등 구체적인 담화 유형들을 좀더 상세하게 논의한 후, 이런 담화가 어떻게 생성되고 인식되는지의 문제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은 일종의 입문서이기 때문에 논의의 깊이는 별로 없으나, 담화연구의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함으로써 담화연구의 개괄적인 틀을 파악하고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데 필요한 바탕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번역이 그렇듯이 용어의 번역과 띄어쓰기가 쉽지 않았는데, 용어는 이미 출판된 언어학사전과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여 가급적 기존의 번역을 따랐으며, 띄어쓰기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붙여쓰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한 것은 예문이었다. 이 책은 책의 성격상 담화가 예로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상호교류에 관한 부분에서는 맥락이 불분명해 정확한 의미의 파악이 힘든 대화들이 있어 원어민의 도움을 받아 가장 적절한 번역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번역은 주위의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 덕분으로 가능했다. 우선 이 책을 접하게 해주신 임상순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번역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Dwight Strawn 교수님과 Beverly Nelson 교수님, 심리학과와 한광희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주신 김진수 사장님과 편집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우리 언어학계에서 싹트기 시작한 담화연구의 발전과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막상 출판해야 하는 시점에 서니 원본보다 읽기 어려운 번역본만 안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기회가 닿는대로 수정,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1996년 12월 11일

유킨이 씀

목 차

	감사의 글	
	옮긴이의 머리말	
제1장	서론	
	1.1 담화연구의 정의	11
	1.2 이 책의 목적과 구성	13
	1.3 자료의 제시	16
제 1 부	일반적인 방향제시	
제2장	말에 의한 도구로서의 언어(Language as a verbal instrument)	
	2.1 Organon 모델	19
	2.2 협력 원칙(The cooperative principle)	21
	2.3 공손 책략(Politeness strategies)	26
제3장	행위로서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as action)	
	3.1 화용론과 화행 이론	39
	3.2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s)	40
	3.3 담화에서의 언표내적 행위	44
제4장	형태적 측면(Formal aspects)	
	4.1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메시지	55
	4.2 텍스트성(textuality)의 일곱 가지 기준	58
	4.3 다섯 가지 유형의 응집(성)	63

제5장	기능적 측면	
	5.1 담화 상황	73
	5.2 제도기관에서의 담화	76
	5.3 목표와 효과	81
제 2 부		
제6장	구조화된 의미	
	6.1 명제	87
	6.2 거시구조(macrostructures)와 상위구조(superstructures)	92
	6.3 화제(topics)	102
제7장	담화 연결	
	7.1 담화관계	113
	7.2 조응(anaphora)	119
	7.3 직시소(deixis)	124
제8장	담화의 유형(types)	
	8.1 글말(written language)과 말에 의한 상호교류	141
	8.2 일상어(everyday language)와 문어(literary language)	143
	8.3 담화의 분류	146
제9장	문체(styles)	
	9.1 문체에 대한 견해들	157
	9.2 문체 연구의 예	163
	9.3 일상어에서의 은유	167

제 3 부

제10장 상호교류

10.1	전사 체계(transcription system)	173
10.2	말 순서 취하기(turn-taking) 모델	176
10.3	연속 구조(sequential organization)	181

제11장 이야기(narration)

11.1	역사적 배경	191
11.2	사회언어학적 접근	194
11.3	심리언어학적 접근	198

제12장 논증

12.1	사회-심리학적 이론들	207
12.2	논증의 분석	210
12.3	문체와 설득	216

제 4 부

제13장 정보의 제시

13.1	무대화(staging)	227
13.2	시각화(perspectivization)	232
13.3	주어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처리	239

제14장 정보의 도출

14.1	전제	249
14.2	추론	256
14.3	사전 지식의 역할	260

제15장	담화의 생성	275
15.1	생각에서 텍스트까지	275
15.2	쓰기 기술	281
15.3	텍스트 질(text quality)의 판정	288
제16장	담화의 이해	299
16.1	명료성 공식(Readability formulas)	299
16.2	이해의 측정	303
16.3	읽기 과정 모델	306
제17장	결론	317
17.1	개념들의 틀	317
17.2	주요 문제들	320
17.3	향후 연구 과제	326
	참고문헌	329
	색인	349

제 1 장 서론

1.1 담화연구의 정의

담화연구는 말에 의한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형태와 기능 사이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이 짧지만 포괄적인 정의가 바로 이 책의 출발점이 된다. 이런 정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기한다.

1. 형태와 기능 사이의 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이런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 분야가 정말 필요한가?

이 절에서는 이런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의 목적과 성격은 다음의 두 절에서 논의될 것이다.

형태와 기능 사이의 관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음에 주어진 대화를 고려해 보자.

- (1) A: Say, there's a good movie playing tonight.
B: Actually, I have to study.
A: Too bad.
B: Yes, I'm sorry.
A: Well, I guess I don't need to ask you if you want me to pick you up.
(A: 그런데 말이지, 오늘 밤 좋은 영화 해.
B: 사실, 난 공부해야 돼.
A: 안됐군.
B: 그래, 미안해.
A: 그렇다면, 차로 데리러 오길 원하냐고 물을 필요가 없겠군.)

12 DISCOURSE STUDIES

이 예에서 A의 첫번째 발화문은 그날 밤 어떤 좋은 영화가 상영된다는 내용의 진술문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 진술문은 B를 초청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B도 A의 이 말이 초청의 의미로 의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B는 단순히 “잘됐군(that's nice)”이나 “나는 몰랐어(I didn't know that)”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그날 밤 공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또다른 진술문으로 대답하고 있다. 이를 통해 B의 대답은 초청에 대한 거절로 간주되는데, A의 유감 표명은 이런 해석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화에서 ‘진술문’이라는 형태는 ‘초청’(A의 첫번째 발화문)이라는 기능과 그 초청에 대한 ‘거절’(B의 첫번째 발화문)의 기능을 하고 있다. 아래에 주어진 다른 예들은 새로 지은 사무실 복합 건물(office complex)에 관한 진술의 일부분과 이를 약간 다른 형태로 변형시킨 것이다.

(2a) The new office complex is situated in the old city center. The architectural firm of Wilkinson and Sons designed it.

(그 새 사무실 복합 건물은 그 오래된 도심에 위치해 있다. Wilkinson & Sons 건설 회사가 그것을 설계했다.)

(2b) The new office complex is situated in the old city center. It was designed by the architectural firm of Wilkinson and Sons.

(그 새 사무실 복합 건물은 그 오래된 도심에 위치해 있다. 그것은 Wilkinson & Sons 건설 회사에 의해 설계되었다.)

(2a)에서는 두번째 문장에 능동태가 사용된 반면, (2b)에서는 수동태가 사용되었다. 이 두 문장에서 기능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능동태에서는 그 설계를 제공한 회사가 강조되고 있고, 반면에 수동태에서는 사무실 복합 건물이 상술되고 있다. 거의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형태가 사용되는 경우 이런 다른 형태는 기능의 차이로 이어진다. 여기서 담화연구의 목표는 형태와 기능에서의 체계적인 차이와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 설명적인 기술(explanatory description)

을 제공하는 데 있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별개의 연구 분야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형태와 기능에 대한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심리학, 사회학, 철학과 같이 말에 의한 의사소통(verbal communication)과 관련된 다른 분야뿐만 아니라, 언어학, 문학, 수사학, 문체학과 같은 여러 가지 다른 분야로부터의 기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취해지기 때문에 공통의 지반(common ground)이 필요하다. 담화연구가 바로 이런 공통의 지반이 되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학파들이 의사소통에서의 형태와 기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여를 하게 된다.

1.2 이 책의 목적과 구성

이 책의 목적은 앞으로 이 분야를 공부할 학생들이 담화연구의 가장 중요한 개념과 주요 문제점들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런 기본 개념들에 대한 지식은 이 학생들이 좀더 고급 과정의 담화연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과학적인 '도구 상자(toolkit)'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입문서는 *Discourse Process, Text, Journal of Pragmatics, Cognitive Linguistics, Discourse and Science*와 같은 학술지와, *Th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van Dijk, 1985)와 같은 논문집에 실린 글들을 읽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책은 4부로 이루어져 있다. 제1부의 2, 3, 4, 5장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이 책에서는 담화연구를 '말에 의한 의사소통에서의 형태와 기능의 관계에 대한 조사'로 정의했는데, 이 분야에서 필수적인 네 개의 개념, 즉 '말에 의한(verbal)', '의사소통(communication)', '형태(form)', '기능(function)'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제2장의 '말에 의한 도구로서의 언어(Language as a verbal instrument)'에서는 '말에 의한(verbal)'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도구어(instrument language)의 사용을 지배하는 원칙들과, 언어가 사용될 때 집중적으로 추구되는 책략들이다. 제3장의 '행위로서의 의사소통

(Communication as action)’에서는 의사소통의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논의된다. 여기서는 의사소통이 행위의 수행으로서 다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 범위는 화행과 이 화행이 담화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대한 논의에 국한되게 될 것이다.

형태와 기능은 사람을 현혹시킬 정도로 단순한 단어들이다. 제4장의 ‘형태적 측면(Formal aspects)’에서는 담화의 정의와, 담화분석에 필수적인 다양한 개념들을 논의한다. 담화라는 개념은, 말에 의한 의사소통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필기체(written mode) 뿐만 아니라 구어체(oral mode)의 형태도 가진다. 제5장의 ‘기능적 측면(Functional aspects)’에서는 담화연구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의 ‘기능’이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이 주어질 것이다. 이와 함께, 담화의 기능이 담화가 사용되는 상황에 의존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도 있게 될 것이다.

제2부는 기본적인 현상들에 대해 소개한다. 제6장과 7장에서는 담화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building blocks)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가 논의된다. 제6장의 ‘구조화된 의미(Structured meanings)’에서는 보다 큰 단위(구조)라는 맥락에서 어떤 문제들(화제)에 대한 정보 단위들(명제)을 논의한다. 제7장의 ‘담화 연결(Discourse connections)’은 담화 내에서의 연결 관계를 다룬다. 가령, 명제들 또는 일련의 명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떤 단어들이 앞의 담화를 지시하고, 어떤 단어들이 다음에 이어지는 담화를 지시하며, 어떤 단어들이 그 담화의 바깥에 있는 무엇인가를 지시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이어지는 두 개의 장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두 가지 문제가 논의된다. 제8장의 ‘담화의 유형(Types)’에서는 문어(literary language)와 일상어(everyday language) 사이의 차이를 기술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가능한 담화의 유형들을 논의한다. 제9장의 ‘문체(Styles)’에서는 문체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문체의 변이(variation)를 기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본다.

제3부에서는 구체적인 담화의 유형들이 논의된다. 말에 의한 상호교류(verbal interaction)는 글말(written text)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제10장의 ‘상호 교류’는 대화의 분석에서 핵심이 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문학 연구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구조에 대한 연구는 그 나름대로의 접근법이 있다. 제11장의 '이야기(Narration)'에서는 이야기를 연구하기 위한 사회 및 심리언어학적인 접근법들을 소개할 것이다. 제12장의 '논증(Argumentation)'에서는 논쟁적이거나 설득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연구의 특징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게 된다.

제4부에서는 담화의 생성과 인식을 다룬다. 메시지를 받는 사람은 그 화제에 대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주로 새로운 정보를 찾고자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필자나 화자는 어떤 정보를 강조하거나, 또는 그것이 이미 독자나 청자에게 알려졌다고 가정할 것이다. 화제도 어떤 특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제13장의 '정보의 제시(The presentation of information)'에서 다루어진다. 그뿐 아니라, 청자는 실제로 말해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화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제14장의 '정보의 도출(The derivation of information)'에서 설명될 것이다. 이어지는 두 개의 장에서는 쓰기(writing)와 읽기(reading)에서의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게 된다. 우선, 제15장의 '담화의 생성(Producing discourse)'은 제13장에서 논의된 정보의 제시와 관련이 있다. 여기서는 쓰기의 과정, 언어 숙달, 글의 질(text quality)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장에서는 내용의 전개가 담화의 과정(process)으로부터 담화의 결과 또는 산물(product)에 관한 것으로 넘어간다. 반면에, 정보의 도출을 다루었던 제14장과 관련되는 제16장 '담화의 이해(Understanding discourse)'에서는 내용의 전개가 담화의 결과로부터 담화의 과정으로 넘어간다. 여기서는 텍스트의 명료성(readability)에 대한 연구로부터 담화 이해의 과정까지 다루게 된다.

마지막 장인 제17장에서는 통사 형태의 담화 기능과 텍스트의 질에 관한 문제와 같은 중요한 연구 과제들에 대해 좀더 논의를 한다. 여러 가지 핵심적인 개념들로 이루어진 한 개의 이론틀/framework)도 제시될 것이다.

1.3 자료의 제시

이 책에서 사용된 자료들은 대학교 수준의 담화연구를 처음 소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을 띠고 있는 담화연구에는, 여기에 사용되는 이론적인 개념들이 그들 본래의 학문적 맥락(가령, 철학, 언어학, 심리학, 사회학 등)에서 벗어남으로써 하찮은 것으로 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담화연구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개념들의 출처에 특별한 관심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생소한 개념들을 다룰 때는 가급적 정확한 응용의 예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 책에서 선택되어 인용된 연구의 예들이 모두 최근의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오늘날 담화연구의 발달에 밀바탕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접근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영미(Anglo-American) 및 유럽 전통 등 두 가지 관점에서 행해진, 담화연구에서의 여러 가지 고전적인 연구에 익숙해지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다.

입문서에서 핵심적인 개념들의 정의를 아주 깊이 논의하거나, 이제 겨우 형상화되기 시작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상술할 수 없음은 분명한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각 장마다 권장 참고 문헌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각 장의 끝에 주어진 질문과 연구 과제는 겉으로 는 문제가 되지 않는 듯한 구분 또는 차이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의도된 것이다.

질문과 연구 과제

1. 여러분 자신의 표현으로 담화연구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제17장의 마지막 질문을 위해 이 대답을 기억해 두시오).